



이미 시작된 합주, ‘왜?’란 질문은 우문이다

내 마음을 담은 이미지를 폰카로 ‘찰칵’ 촬영한다. 시간 끌 것 없이 사랑하는 이에게 전송한다. 구구절절한 편지 몇 장보다 경제적이고 효과가 있는 고백이다.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은 백 번의 말 혹은 백 줄의 글보다 한 장의 명쾌한 사진이 좋다고 말한다.

출판계도 읽는 데서 보는 데로 시선을 돌린 지 오래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독자들 혹은 출판계가 텍스트를 배반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책들은 고전적인 형태의 사진집은 아니다. 독자들은 사진만 얹힌 책보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줄 글이라도 담은 책에 눈길을 준다. 독주 아닌 합주, 그 안에 남모를 매력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사진 자체의 완성도나 그것 자체를 읽는 눈보단 사진과 글의 만남에서 파생된 메시지에 관심을 준다는 의미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책들은 대부분 감성을 자극하는 책들이다. 2001년 바다출판사에서 출간된 《더 블루 데이 북 The Blue Day Book》은 사진에세이의 대표적인 책이다. 이 책은 인간의 희노애락과 관련된 글과 동물의 다양한 표정과 행동이 담긴 사진을 병렬한다. 김인호 사장은 “이미지를 사용해 누구라도 부담 없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며 책의 접근방법을 성공 요인으로 손꼽은 바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책의 사진들은 그것과 상관되는 짝막한 문장, 단어들과 함께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얻는다. 인터넷 서점에 서평을 올린 한 독자는 “어느 한 부분 버릴 수 없는 글귀들”이라며 한 컷 한 컷 사진과 맛깔스러운 글의 궁합이 절묘했다고 평가했다.

2002년부터 출간된 이레의 M.I.L.K 시리즈도 마음에 힘을 주는 사진에세이다. “가족의 얼굴은 미술 거울이다” 등 가족들의 미소, 사랑하는 이와 의 잇을 수 없는 순간을 담은 사진 곁에 소개된 글들은 시적인 울

림까지 제공한다. 마음산책 정은숙 대표는 “보는 것은 읽는 것으로, 읽는 것은 보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읽는 사진책, 보는 문학책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런 형태의 책들은 비단 문학, 산문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시도되는 추세다.

박영률출판사의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배치했다는 데서 이례적이다. 공동기획자였던 박영률 대표는 “이젠 자기주장 시대를 보내고 공동체, 즉 약속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약속을 의미하는 헌법을 주 텍스트로 놓았다”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헌법 텍스트 옆에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담겨 있다는 것.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 두런두런 모여앉아 점심을 먹는 농촌 사람들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들, 사연들을 담은 ‘한 컷 한 컷’이다. 박 대표는 “가장 일상적인 우리 모습들을 통해 헌법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이런 사진들을 배치한 이유를 밝혔다.

출판관계자들은 글과 사진의 이중주는 사진의 독주와 비교할 때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책값이 싸지니 독자들은 이런 책을 반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니 선물하기에 좋다. 사진집 모으듯 모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며 이런 책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사진과 글의 합주는 시작됐다. 다음 숙제는 사진과 텍스트가 한 배를 탈 때 어떤 합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이다. 이제 “왜 이미지인가? 왜 사진인가?”란 질문은 우문이 돼버렸다. 행여 사진이 글을 해치진 않는지, 반대로 글이 사진을 해치진 않는지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김창연**

김창연 기자